

같이 보기

: 소통N공감

친환경을 넘어 환경이 필수가 된 '필(必)환경시대'다. 몇 년 사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쓰레기 없는 삶을 지향하는 환경운동 '제로 웨이스트(Zero-waste)'를 전개하는 이들이 늘었다. 이들은 불필요한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기본,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리사이클링해서 사용한다. 우리가 선택한 작은 불편함이 언젠가 지구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지 않을까?

글 편집실

# 지금은 필(必)환경시대 제로 웨이스트를 부탁해~



## 지구를 메운 쓰레기와 제로 웨이스트의 움직임

코로나19 사태가 유발한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일회용품 쓰레기는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올 상반기 종이류, 페플라스틱과 폐비닐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각각 23%, 15%, 1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대부분은 환경문제에 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한국피앤지가 만 15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4,000명을 상대로 '국내 소비자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 행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95.5%가 "환경오염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응답자 82.2%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활용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73.3%가 "제품을 구입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 편의성을 포기하더라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실제 생활 속에서 친환경적인 실천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실제로 지난 3개월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한 응답자는 25.5%에 불과했다. 우리 주변을 가득 메운 쓰레기에 경각심을 느끼며 그 어느 때보다 윤리적인 소비를 위해 적극적인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이 와중에도 환경을 생각하는 고마운 움직임이 젊은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를 실행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난 것. 이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캠페인으로 개개인이 실생활 속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인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다. 비닐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장을 볼 때 에코백을 들고 다닌다는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카페에 갈 때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에 공유하는 식이다.

## 필요 없는 건 거절하고 재활용하세요

제로 웨이스트의 창시자로 불리는 비 존슨(Bea Johnson)은 저서 「나는 쓰레기 없이 살기로 했다」에서 제로 웨이스트의 실천방안으로 '5R'을 제시한다. 5R은 ▲Refuse(필요 없는 물건은 거절하기) ▲Reduce(쓰는 양은 줄이기) ▲Reuse(다회용 제품을 이용하기) ▲Recycle(재활용은 다시 쓸 수 없을 때만 하기) ▲Rot(썩는 제품을 사용해서 매립해 자원을 순환시키기) 등이다.

5R 중 비 존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거절이다. 그는 명함도 받지 않고 누군가가 나눠주는 공짜 펜도 마다한다. 옷장에 둔 15벌의 옷만으로 1년을 보낸다. 불필요한 사용을 줄임으로써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비 존슨은 제로 웨이스트에 처음 도전하는 이들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 개론' 자료를 '더 피커'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다음은 더 피커가 제공한 '쓰레기 줄이는 방법'이다.

### 쓰레기 줄이는 5가지 방법

- ① 생분해성 대나무 칫솔 사용하기
- ② 샘플, 1+ 등 필요 없는 물건은 거절하기
- ③ 휴지보다 손수건 사용 일상화하기
- ④ 포장 없는 벌크 제품 구입하기
- ⑤ 포장 음식 줄이기



완벽하게 지키지는 않더라도 꾸준한 제로 웨이스트 실천으로 '지구의 청정한 내일'을 그려보는 것은 어렵까. 아울러 환경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연대가 지속되기를 바라본다. ☺